

태권도 교육 담론의 문화주의적 전환

김동식* (서울동답초등학교 교사) · 장용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태권도 교육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화주의 시대의 태권도 교육의 방향성을 제언하는데 있다. 태권도 교육 담론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며, 크게 단련 중심의 신체의 교육에서 태권도를 통한 인성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논의하였다. 신체의 교육 담론은 태권도의 '무(武수)'의 교육적 가치에 근거하며 수련자의 신체발달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담론은 태권도의 '도(道)'의 가치에 근거하며, 수련을 통한 도덕적 가치 혹은 인격도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들 담론의 한계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며 외재적 정당화로서의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담론의 주체성 측면에서 정작 수련생들의 담론은 타자화 되어왔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태권도 문화주의적 전회를 통해서 태권도 교육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주의 시대를 은유하는 소프트 파워론을 통해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화적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글로벌 시대의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 표준 문화에 대항하는 개별문화 보존, 다문화사회에 주요 문화적 유산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태권도 문화 교육의 지향점을 세계시민성 교육 측면, 태권도 문화 형성을 위한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문화주의, 태권도 교육, 태권도 교육 담론

* honayudo@daum.net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태권도 교육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화주의 시대의 태권도 교육의 방향성을 제언하는데 있다. 우선 태권도 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태권도 교육이라는 용어는 ‘태권도’와 ‘교육’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며,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태권도는 일종의 격투기법으로서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형성된 인간움직임의 틀이면서도, 인간의 움직임 속에 깃든 철학적 원리라고도 볼 수 있다(김병태, 김현수, 김동규, 2008; 김기홍, 김동규, 2005).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철학적 원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태권도 안에 교육의 개념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이흥우 2010; 장상호, 2008; 홍은숙, 2007).

특히, 홍은숙(2007)은 교육을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실천전통에의 입문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판단력 등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태권도라는 하나의 실천전통에 입문한다는 것은 태권도라는 실천전통의 ‘내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한다(홍은숙, 2007, p143). 즉, 태권도 교육이란 태권도와 관련된 일련의 명제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에 내재된 가치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장용규,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육의 개념은 태권도라는 하나의 실천전통 흐름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태권도 교육 담론이라고 하면 태권도라는 주제로 학교교육이나 도장, 태권도 관련 기관에서 태권도를 주제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교육활동과 관련지어서 일컬어지는 이야기들이나 생각, 관념 등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이정우, 2002).

연구자들이 태권도 교육 담론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하는 교육적 담론이 주로 신체적 효과 혹은 인성 교육적 가치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담론은 태권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태권도를 수단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외재적 정당화라고 할 수 있다. 수단의 가치는 목적의 가치에 의존하며, 목적의 가치가 의심스러우면 수단의 가치 또한 의심스러워진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의 공헌도가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한 수단의 가치는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다.

태권도가 신체적 효과 혹은 인성 교육의 수단이라면, 태권도 보다 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 존재한다면 태권도 교육의 가치는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자들이 보기에 현재의 태권도 교육 담론의 주체는 태권도 틀 밖에 존재한다. 태권도 교육과 관련된 담론적 역사를 되짚어 볼 때 태권도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국가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에 따라 구성 되어왔던 것이다. 예컨대, 1970년대 태권도 교육은 기초체력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1990년대 태권도 교육은 인성 교육적 가치를 주목받았다. 태권도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적 담론 속에서 태권도 교육의 가치담론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연구자들은 태권도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의 가치는 현시대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기존과 다른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시대는 다문화주의, 전지구화라는 키워드가 보편화 되는 시대이면서, 여전히 민족주의 담론이 애국주의적 색깔을 띄며 생명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이다(강진웅, 2013). 화합과 평화라는 아젠다 아래 펼쳐지는 국제경쟁의 무대에서 ‘문화’의 활용은 이미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김기홍, 위군, 2015),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강경화, 엄홍석, 2018; 서창배, 오혜정, 2014; 이지원,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정책을 강조하며, 경쟁의 대열에 합류 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시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는 스포츠교육의 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유정애, 김선희, 2007). 스포츠 자체에 교육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강재원 2013; 이동호, 2007). 뿐만 아니라 태권도 또한 다양한 학자들이 그 문화적 가치를 논의해왔다. 연구자들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태권도 문화교육 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태권도 문화교육은 태권도를 우리 전통문화로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2장에서는 태권도 교육 담론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한다. 2장에서의 논의 방식은 스포츠교육학 전통에서 논의되어 왔던 신체의 교육/신체를 통한 교육 아이디어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연구자들은 태권도 교육의 가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태권

도 교육의 가치 담론이 미세하게 변화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언론사들의 기사도 일부 인용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문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문화주의 시대를 은유하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통해 문화적 관점의 필요성을 살피고, 현재까지 논의된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살피고, 이어서 태권도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Ⅱ. 태권도 교육 담론의 계보학적 검토

1. 단련 중심의 ‘신체의 교육’

태권도 교육 담론을 구성하는 한 가지 주제는 태권도의 가치와 관련된 ‘가치담론’의 성격을 가진다. 태권도의 가치를 해명하는 일은 태권도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관련된 제반의 실천행위를 뒷받침한다.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이유 혹은 태권도와 관련된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론되는 국가 정책이나 기관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부터, 가정에서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미시적인 생활 속 실천 행위를 포함한다. 즉, 태권도 교육 담론은 ‘태권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혹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해명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담론’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가치 담론은 때문에 그간 태권도학계에서는 태권도의 가치를 해명하는 일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송형석, 2015; 이동호 2009, 2010; 임일혁, 이강구, 2015; 최유리, 홍영준, 김지혁, 2017; 추나영, 2018).

태권도 교육의 가치담론 한 측면에는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physical)’과 관련된 담론이 자리 잡고 있다. 신체의 교육이란 ‘건강한 몸을 만들 목적으로 하는 교육 혹은 신체구조, 신체발달, 신체의 생리학적, 기계적 기능 및 최대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다. 즉, 태권도는 수련자의 신체발달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신체의 교육’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철학적 배경에는 태권도 무도성과 관련된 담론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태권도의 ‘무(武)’의 교육적 가치는 신체적 탁월성을 지향하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으며(이동호, 2010), 이는 결국 태권도 교육이 신체의 단련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한다고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무도를 수련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단련에 있으며, 태권도 또한 전통적인 수련 방법인 ‘단련’을 수련의 핵심으로 파악한 바 있다(류병관, 지치환, 1998).

실제로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신체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김도연과 허종관(2007)의 연구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96년까지 태권도를 주제로 한 각 대학원의 학위논문의 연구 주제는 생리학적 변인, 경기기술, 역학적 변인, 상해 등 주로 인간의 ‘신체’를 주제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김도연, 허종관, 2007, p69).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태권도의 신체적인 효과는 체력증진, 비만해소,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기여 등으로 볼 수 있다(Lakes, 2013). 특히,레이크(Lakes, 2013, p107)는 태권도는 팀 활동 참여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황인식과 정찬모(2010)는 중학생들에게 24주간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태권도 수련이 신체구성과 건강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바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체질량 지수가 감소되었으며, 건강 체력의 경우 조금 증가하였으나 변화의 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상규, 신인수와 정진원(2012)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체력 변화를 검증한 22편의 논문을 메타분석 한 결과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들의 신체조성과 체력에 큰 효과크기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태권도 수련이 BMI, 체지방량, 근육량, 복부지방을 등 초등학생들의 신체조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련 중심의 ‘신체의 교육’ 담론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었던 강력한 국가주도의 체육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당시 시대적 상황은 반공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분위기였고(전윤수, 주동진, 2005), 일부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반공교육 일환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 시기의 체육에 대한 정책은 스포츠가 국위선양과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체력을 증진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국가 수준의 체육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1973년에 개정된 3차 체육 교육과정은 2차 교육과정의 6개 영역(체조, 스포츠, 무용, 레크리에이션 활동, 보건, 체육이론)에서 10개영역(순환운동, 체조, 질서운동,

육상경기, 구기, 투기, 계절운동, 무용(예), 보건, 체육이론)으로 보다 세분화되었으며,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었다(황옥철, 김정수, 2008).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기도 했다. 태권도가 공교육에서 하나의 교육내용을 자리 잡는 장면에서도 신체의 교육을 강조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기초체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요즈음 일부중고등학교에서 체력검사도중 졸도등 사고가 잇달자 체력검사실시에 따른 세부주의사항을 마련, 21일 시내 중고교에 시달했다...(중략)...앞으로는 지구력, 유연성등 기초체력의 요소를 형성할 수 있는 육상, 체조, 유도, 씨름 태권도등을 중점 지도하라고 시달했다(1972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물론 당시 국민들과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 했다. 연구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체육 정책으로부터 태권도 교육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태권도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태권도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는 신체를 단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태권도 교육과 관련된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2. 태권도를 통한 ‘인성 교육’

태권도 교육의 가치담론 다른 한 측면에는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physical)’과 관련된 담론이 자리 잡고 있다. 신체를 통한 교육의 개념은 ‘신체의 교육’의 개념이 갖고 있던 모순점들을 비판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제기되었다(Kirk, 2010). 신체를 통한 교육이란 19세기 후반부터 크게 유행했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에 의해 대두된 개념으로(안양옥, 2010),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체육이 신체단련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획득, 인격의 형성, 개인적 가치와 책임의 학습, 자아 성취감 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장용규, 김동식, 2018; 김성곤, 2017; 최의창, 2009).

태권도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철학적 배경에는 태권도의 ‘도(道)’의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태권도의 수련 목적의 궁극적인 가치는 신체 단련이나 기술 향상과 같은 외형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한 도덕적인 가치 추구 및 인격 도야에 있다고 본다(김병태, 김현수, 김동규, 2008; 이동호, 2010). 태권도 교육

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 담론은 단련 중심의 태권도 교육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비교적 최근 들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 했으며,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양태로 나타난다.

태권도를 통한 인성 교육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행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성의 개념을 심리학적 특성(personality)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기현, 1992; 김용길, 박준석, 1998; 김종덕, 1997; 윤공화, 1999; 진중의 1998).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개인의 갖게 될 수 있는 개별적인 특수성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인성의 개념을 인간다움과 관련짓는 철학적 개념(characteristic)은 심리학적 관점의 인성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도덕적 함축이 담겨 있다(정창우, 2016).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초기에 연구된 이창근과 우종웅(2002)이 주장한 태권도 수련의 인성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자. 그들은 ‘최홍희’가 주장한 태권도 정신 중에서 예의, 염치, 인내, 극기가 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4가지 정신적 요소는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언론에서 인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인 문서에 ‘인성’이 포함된 것은 1995년 5월 31일자로 발표된 ‘교육개혁안’에서이다(김원중, 2014; 이은아, 2015). ‘5·31 교육개혁안’은 당시 지식위주 교육,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요약되는 교육적 병폐를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서 학교폭력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김민수, 2014; 김원중, 2014; 이은아, 2015). 결과적으로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도구적·단편적 지식 교육의 결과이며, 자살 또는 학교폭력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의 문제로 인식되고, 결국 인성 교육과 관련된 필요성과 논의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된 것이다(김민수, 2014).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언론기사 한 단락을 인용해본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묵은 애기지만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이 극악해지고 흉포해지는데에 문제가 있다...(중략)...학교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산업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은 인성의 계발 보다는 능력지향의 기능주의 교육에 치우쳐져있다.** 제한된 그릇에 너무 많은 물건을 담다보면 그 그릇은 깨어지게 마련이다...(중략)...경쟁사회에서의 기능주의 교육의 한계가 바로 10대 범죄의 원인인 것이다 (1991년 10월 8일, 동아일보)”

더군다나 이제는 ‘인성’ 그 자체가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2013년도에 도입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인성 등급’, ‘인성 스펙’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으며, 인성의 ‘상품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이은아, 2015).

태권도 교육 또한 이러한 사회적 담론과 별도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태권도를 통한 인성 교육 담론 또한 태권도 본질에 내포된 정신적 가치 혹은 인성 교육적 가치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는 왜 인성 교육을 해야 하는가?’ 또는 ‘태권도만이 인성교육의 유일한 길인가?’와 같은 질문과 별개로 실제로 이제 많은 수련생들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격 및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태권도장에 보낸다(김찬우, 김인, 백중수, 2010).

3. 태권도 교육 담론의 한계

태권도 교육 담론은 가치 담론적 성격을 지닌다. 태권도 교육 담론은 태권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며, 이는 곧 태권도 교육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된다. 태권도에 관한 제반의 교육 활동 즉, 태권도 교육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중의 의미를 지닌다. 태권도 교육의 정당화는 현재 지향적이며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작업이다. 태권도 교육의 의미를 밝힌다는 점에서 현재 태권도계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이며, 동시에, 그 활동이 지향하여야 하는 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태권도의 미래와 연관된 문제이다. 둘째, 태권도 교육의 정당화는 보편 지향적인 작업인 동시에 특수 지향적인 작업이다. 태권도 교육의 정당화는 일반적인 교육과 동일한 보편적 근거에 기반에 두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타 스포츠와 구별될 수 있는 특수성을 밝히는 작업이어야 된다(김홍식, 2003, p109). 그런 점에서 앞선 태권도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담론들은 모두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두 담론 태권도 교육을 내재적으로 정당화 하는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정 활동을 왜 가르치는가?의 질문에 가장 손쉬운 대답은 그 활동의 유용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광민, 2007, p88). 특정 활동이나 교육내용이 그 결과로서 개인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국가적 이득에 기반이 된다고 밝힌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된다.

* 정민주(2017)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변화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는 구직자들의 스펙관리 경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때문에 구직자들의 스펙관리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 능력 수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까지 대상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인성 교육 담론에 영향을 미쳤으며, 태권도 교육 담론 또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비추어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에 의한 정당화’라고 할 수 있으며, 외재적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를 한다는 점에서 ‘외재적 정당화’라고 할 수 있다(김광민, 2007; 이홍우, 2010; 장용규, 2010). 이미 많은 교육학자들이 외재적 정당화의 난점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외재적 정당화는 태권도를 다른 목적의 성취에 공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애써 증명하면서, 태권도의 가치를 태권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의 가치에 종속시키게 된다. 예컨대, 태권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신체적 단련이나 인성 교육이고, 각각 영역에 태권도 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내용이 발견된다면 태권도의 가치는 부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장용규, 2010; 최의창, 1997).

한편, 김홍식(2009)은 체육의 가치 담론이 ‘자연주의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의는 태권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1) 태권도는 인간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등으로 변화시킨다.
- (2) 그 변화는 좋은 것이다.
- (3) 따라서 태권도는 가치 있다.

(1)의 내용은 여러 경험적 연구 즉, 사실에 기반 하지만, (2)의 주장은 별도로 해명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주의 오류란 가치의 판단 혹은 진술을 사실의 판단 및 진술로 환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서, ‘ 좋음’은 더 이상 분석이 될 수 없는 단순한 관념임에도 불구하고, 좋음을 정의하거나 자연적 속성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Moore, 1988)*.

둘째, 담론의 주체성 문제와 관련 되어 있다. 태권도 교육 담론은 누가 주도하는가? 태권도 교육 담론은 태권도 학자나 지도자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태권도 교육의 담론에서 교육의 한 주체인 수련생들은 타자로 담론의 중심부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장용규와 김동식(2016)은 태권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민족문화의 원형’이라는 본질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담론 주체들의 구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태권도를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대중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논리로, 태권도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고 논의하는데 태권도 교육의 주체인 수련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 실제 가치-사실의 구분은 많은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윤리학의 영역에서 무어의 자연주의 오류는 유효한 윤리학적 논점을 제공한다고 평가된다(김홍식, 2009). 가치-사실의 구분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 퍼트남(2002)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사실과 가치가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

수 있는 담론의 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기홍과 김동규(2005)는 태권도의 정체성의 문제는 대중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지식과 문화는 대중성을 획득함으로써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본질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의 태권도 교육은 이러한 대중성을 점차 잃어가는 듯하다. 이승환(2011)은 종주국의 태권도장엔 태권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Ⅲ. 문화주의 시대의 태권도 교육의 방향

1. 왜 문화인가?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서의 문화

흔히 문화라고 하면 공연, 예술, 전통, 음악, 스포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과 대상을 떠올릴 수 있다. 학교문화, 청소년문화, 음식문화 등과 같이 문화라는 단어의 용례를 볼 때 문화라는 용어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문화라는 용어의 일상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문화는 때로는 도시공간이나 시설 등과 같은 인간이 창조한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의미하고도 하고, 정책이나 제도 또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 가치, 생활방식을 뜻하기도 한다(심광현, 2003; 정수진, 2008).

문화라는 용어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과거의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 종속변수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한 집단의 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독립변수로 기능하고 있다(이원오, 2017). 과거 세기가 노동력과 자본에 기반을 둔 산업화 시대였다면, 문화의 시대는 문화적 창의성이 개인과 국가, 지역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는 시대로, 문화가 개인생활을 중심으로 되면서도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Joseph Nye(2004)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개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절하게 은유하고 있다(김상배, 2009). 세계화 시대의 권력의 자원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군사력이나 무력제재와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로부터 자발적 동기를 유도하는 문화외교와 같은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Nye, 2004). 소프트 파워란 위협, 강제, 보상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행위 등 과 같은 ‘매력’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의미한다(Nye, 2004).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종전의 협소한 권력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21세기 권력 변환의 과정을 잡아낸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김상배, 2009, p16).

소프트 파워는 주로 세 가지 형태의 자원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 나라 ‘문화’와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이 그것이다(Nye, 2004).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들의 효용성이 그것이 작용하는 맥락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특정 대중문화나 정치적 가치관, 대외정책은 특정 국가에서는 해당 자원을 소유한 국가에 대해 호감을 갖게 만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특정 국가에서는 오히려 혐오감을 자아내 사실상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다.

소프트 파워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패권안정을 위해 제기된 이론이라는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소프트 파워가 실질적인 국제권력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하지만(김상배, 2009), 문화주의 시대에 소프트 파워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압이나 보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조기제, 2016).

연구자들은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한다. 문화라는 키워드는 그간 사회과학에서 다양하게 접근했던 주제이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사회과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형성되고 있다.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강조 역시 국제정치에서의 ‘문화로의 전환’을 반영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김상배, 2009, p142). 한편, 최근 수년간 체육학회나 태권도계에서도 ‘문화’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으며, 태권도를 단순히 무도/스포츠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 ‘문화콘텐츠’으로 보고 이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강재원, 2013; 권경상, 권현수, 2017; 이루지, 2014). 이러한 주장들은 태권도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태권도 문화콘텐츠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주장한다.

물론 Nye가 지적한 대로 특정한 대중문화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곧 바로 국제정치적 권력 관계에서 한 집단의 소프트 파워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우리나라 K-Pop과 드라마가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다고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또한, 태권도 교육의

이러한 접근은 또 다른 방식에서 국가주의적 패러다임을 통한 경쟁적 국민 육성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태권도 교육의 가치를 신체 단련이나 인성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개인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역량을 갖추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이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스포츠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게 만든다(유정애, 김선희, 2007). 스포츠 문화 교육에는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더 나은 스포츠 문화,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도 함께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태권도 자체만으로 따져볼 때 다른 스포츠와 차별화 되어 있다. 태생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동양적 문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한국을 기반으로 한 신체, 정신문화임이 분명하다. 문화란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가는 것으로, 문화의 한쪽 끝에는 '전통'이 놓여 있다. 즉, 현대적 관점에서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전통의 의미와 역사적 관점은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나혜, 2018; 이동호, 2007). 실제로 태권도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적 발자취를 담고 있다. 태권도의 정체성이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에 있던, 식민지 시대의 잔재인 일본의 가라테에 있던 어떤 방식으로든 태권도 그 자체로 우리나라 역사가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실재임에는 분명하다(장용규, 김동식, 2016; 정수진, 2008). 태권도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즐기고 향유하는 스포츠가 되어있다. 때문에 태권도가 이제 우리 고유의 무술이나 문화적 콘텐츠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글로벌 시대에 태권도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연구자들은 태권도를 여러 나라들의 문화가 만나는 중요한 장(forum)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종 세계대회, 그랑프리 대회, 세계태권도한마당 등 국제대회에서 세계인들이 만나 태권도를 통해 문화를 공유하고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전파 사범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예절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다. 도장 이외에도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정

착하여 상호 소통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교류 과정은 태권도의 소프트 파워를 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태권도 세계화를 과정에서 작동한 소프트 파워의 사례를 찾아보면 우선 국군태권도 시범단이 1959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실시한 태권도 시범을 사례로 들 수 있겠다. 국군태권도 시범단은 대만을 방문하여 태권도시범을 보이면서 태권도를 세계에 선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국군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대한태권도협회는 1965년 공식적으로 ‘태권도친선사절단’이라는 시범단을 구성하여 유럽을 비롯한 태권도 미개척지에 순회 시범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태권도를 알리는 홍보대사와 외교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렇듯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원들이 태권도를 해외로 전파함으로써 현지 지역의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이다(권경상, 권현수, 2017). 특히, 현재도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들은 현지인들과 태권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발적으로 태권도수련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지구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오히려 개별 국가의 문화의 정체성, 고유성이 상실되고 획일화 되는 이른바 ‘문화적 식민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장은주, 2007), 태권도는 세계화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전통과 정신이 보편적인 민족·국가로 특성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전 세계에 알릴 수 문화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실제로 태권도는 다른 민족, 국가 간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문화로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강재원, 2013). 태권도와 같은 민족적 배경특성을 가진 스포츠의 세계화 과정은 특정 문화의 동질화, 획일화를 가져오는 과정인 동시에 개별성·다양성·문화적 취향과 욕구,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확인 하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한다. 민족과 국가 간 시간·공간·지역적 경계가 점차 약화되고 탈영토화 되는 시대에 태권도는 지구촌이 상호의존·상호이해 관계를 갖게 하는 세계문화인 동시에 우리 민족과 국가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강재원, 2013).

마지막으로 태권도가 가진 민족적 배경과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 교육에 있어 태권도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태권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정모, 이애연, 2018; 안상윤, 2017). 태권도는 세계화를 통해 자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오늘날 사회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고 있다(강재원, 2013). 이처럼 세계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유산인 것이다.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이질감을 희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적 문제와 사회적응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김두한, 김하영, 2015; 김정모, 이애연, 2018).

3. 태권도 문화교육의 지향

인터넷 보급과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타 국가와 사회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덕목으로 세계시민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구조의 체제에 대한 이해로 정의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은 국민 간의 통합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구정우, 이수빈, 2015). 이는 지구촌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덕목이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세계시민성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국경을 넘어선 결속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류보편성과 문화 간(intercultural) 이해에 근거한 새로운 시민적 정체성을 요구되고 있다(Kamens, 2012). 이에 연구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태권도 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태권도 교육을 세계시민 교육 측면에서 보다 세련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자들은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의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아이디어는 지역과 세계를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지역’ 혹은 ‘지역 속의 세계’를 상정하며 ‘세계’와 ‘지역’이라는 양대 공간을 동시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핵심이다(서재철, 2018). 그는 현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서로 동등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며 공생적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홍찬숙, 2016). 서재철(2018)은 태권도의 세계화 비전은 태권도로 매개되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재를 통해 기획, 추진,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태권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세계시민성’이라는 범주를 고려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세계시민성 선행연구들(김왕근, 1999; 설규주, 2004; 구정우, 이수빈, 2015)은 국가적 측면에서 외교정책, 기업시민성, 다국적 시민사회, 그리고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전되어 왔다.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중심이 세계시민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구정우, 이수빈, 2015). 한편, Rorty(1996)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그는 세계시민성의 핵심요소로 구성원들의 대화를 통한 연대가 실천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의 연대성은 공통된 진리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형성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감된 태도와 정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태권도에서도 임태희(2015)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시민성을 강조한 교육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태권도가 시행해야 할 교육을 태권도 실천인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그 교육의 과정을 총 4단계로 분류한 바 있다. 4단계는 ‘나다움’, ‘너와 나다움’, ‘우리다움’, ‘더 큰 우리’로 실천적인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앞서 말한 실천적 연대와 우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태권도 수련이 세계시민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태권도 문화형성을 위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태권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교화의 대상 혹은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왔다. 특히, 전통적인 학교 교육 테두리 내에서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이나 가치를 내면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때문에 문화교육도 기존의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전수와 수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전수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며, 기성세대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이 기존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동력 갖추게 하는 일 또한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해가는 과정들을 밝힌 연구들

이나 청소년 참여에 기반을 둔 실행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특정 문화 형성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시각을 뒷받침한다(남채봉, 2013; 박진규, 2015; 서민경, 곽한영, 2013).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또래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유행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가 하면(서민경, 곽한영, 2013), 문화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문화에 대한 그들만의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남채봉, 2013).

이들 연구들의 공통점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존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청소년문화하면 일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의 문화, 고급스럽지 못한 하위문화, 규범에서 벗어난 비행문화, 기존의 핵심문화를 위협하는 대항문화쯤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컸으나, 오히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불안감 그리고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육성해 가야 할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 흐름은 국제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Education 2030'이 대표적인 사례이다(OECD, 2018).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교육과정 변화의 중심에 학생 주체성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학생 주체성이라 그들이 맞닥뜨릴 미래의 복잡성, 도전 과제들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이상은, 2018). 연구자들은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태권도와 관련된 문화적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태권도 교육은 가치 담론 성격을 가지며 시대별로 크게 두 가지 담론으로 형성/발전 되어왔다. 1970년대 국가 스포츠 육성 정책에 힘입어 태권도 세계화가 가능했으며, 당시 태권도 교육은 건강하고 튼튼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왔다. 1990년대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사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며, 인성교육 담론이 형성되면서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태권도 교육 담론의 두 측면은 외재적 정당화라는 측면과 태권도 교육 담론의 주체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논의했다. 연구자들은 대안적 관점으로

태권도 문화 교육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계는 전지구화와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보편적으로 공유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충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Nye는 이를 소프트 파워로 은유하면서 특히,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서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도 당장은 급한 대로 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홍익인간·선비정신·아리랑·한글·태권도·한강·독도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스포츠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강재원, 2013). 2018년에는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에 정부가 나선다는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태권도 문화콘텐츠를 개발화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개발한다면 태권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와 더불어 태권도 문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자들은 태권도가 청소년들이 즐기고, 향유하며, 새롭게 재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청소년들 단순히 기존 문화를 전수하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 혹은 문화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며, 태권도 교육의 내실화 및 문화콘텐츠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태권도 문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태권도 문화교육이란 기존의 태권도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수련생들이 태권도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간 태권도 수련생들은 교육의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 문화에서 타자로 존재했다면, 수련생 스스로도 태권도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수련생을 태권도 교육 담론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인 동시에, 태권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 태권도 문화교육은 역사, 철학 등에 대한 이해 등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태권도 문화 교육을 접근하는 방법론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예컨대, 태권도를 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태권도를 주제로 만화/영화를 만들어 보는 등과 같은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등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연구자들은 태권도 문화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담론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형성되길 바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며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 문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태권도 교육 내용은 기본동작 및 품새, 겨루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 이론, 태권도 인성 등과 같은 내용요소도 존재하고 있지만, 태권도와 관련된 철학, 역사 등을 포함하는 서사적 이야기나 태권도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태권도 문화 교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현장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태권도 교육의 전문성은 태권도를 가르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 가능하다. 태권도를 실제 가르치는 과정에 대한 실험연구 등이 유용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경화, 엄홍석(2018). 프랑스의 문화 소프트파워, ‘아스테릭스’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 32, 1-21.
- 강재원(2013). 다문화 시대에서의 민족문화콘텐츠 ‘태권도’: 가치와 전망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콘텐츠**, 10, 79-104.
- 구정우, 이수빈(2015). 기업시민성과 세계시민성. **한국사회학**, 49(4), 165-198.
- 권경상, 권현수(2017). 신한류 콘텐츠로써 태권도 시범문화 : 세계화를 위한 성공요인 탐색. **국기원 태권도연구**, 8(4), 147-170.
- 김광민(2007). 교과와 내재적 정당화:메타프락시적 관점. **도덕교육연구**, 19(1), 87-110.
- 김기현(1992). **국교생 태권도수련이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기홍, 김동규(2005). 태권도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13(2), 89-103.
- 김기홍, 위군(2015). 문화정책과 스마트파워 : 중국의 공자육예성 육성 사례를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31, 1-20.
- 김나혜(2018). **태권도 문화의 변천과정 및 구조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도연, 허종관(2007). 태권도 연구동향 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9(1), 61-74.
- 김두한, 김하영(2015). 태권도 수련이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1), 909-920.
- 김민수(2014). ‘인성교육’담론에서 ‘인성’개념의 근거. **교양교육연구**, 8(4), 169-206.
- 김병태, 김현수, 김동규(2008). 태권도 품새에 함축된 교육적 의의와 과제. **한국체육철학회지**,

- 16(1), 11-128.
- 김상배(2009).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49(4), 7-33.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28(단일호), 45-68.
- 김용길, 박준석(1998). 태권도 수련기간에 따른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7(2), 219-228.
- 김원중(2014). 인성교육의 회고와 반성. **교육이론과 실천**, 24, 45-63.
- 김정모, 이애연(2018). 태권도수련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여가만족이 타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1), 187-200.
- 김종덕(1997). **태권도 훈련이 아동의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찬우, 김인, 백종수(2010). 태권도 수련장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적 기대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3), 79-93.
- 김홍식(2003). **스포츠철학 시론**. 서울: 무지개사.
- 김홍식(2009). 체육의 가치 담론과 자연주의 오류. **한국체육철학회지**, 17(4), 173-188.
- 남채봉(2013).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2), 31-65.
- 류병관, 지치환(1998). 태권도 수련의 철학적 가치에 대한 재고. **무도연구소지**, 9(1), 181-195.
- 박상규, 신인수, 정진원(2012). 초등학교의 태권도 수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운동학 학술지**, 14(3), 1-11.
- 박진규(2015). **청소년 문화**. 서울: 학지사.
- 서재철(2018). '태권도 세계화' 비전의 '코스모폴리탄'적 전환: 울리히 벡의 '세계시민적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국기원 태권도연구**, 9(4), 1-22.
- 서창배, 오혜정(2014). 중국의 문화산업화 정책과 소프트 파워 전략. **문화와 정치**, 1(2), 1-33.
- 서민경, 곽한영(2013). **학교 내 포래문화의 형성과 전파**. 서울: 이담.
- 신광현(2003). **이제, 문화교육이다**. 서울: 문화과학.
- 설규주(2004).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3(4), 31-54.
- 안상윤(2017).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만족도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535-543.
- 유정애, 김선희(2007). 왜 스포츠 문화 교육인가? **한국체육학회지**, 46(4), 169-181.
- 윤공화(1999). 무도 특성에 따른 인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2), 182-199.
- 이루지(2014). 문화예술산업 콘텐츠로서 태권도공연의 상품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3), 1-26.
- 이상은(2018).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담론에 나타난 학생 주체성의 재개념화.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철학**, 68, 119-145.

- 이원오(2017). 문화공공성과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한국문학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문학축제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은아(2015).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경제적 인간'에서 '호혜적 인간'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235-255.
- 이지원(2005). 소프트파워론과 일본의 문화전략. *한림일본학*, 10, 41-101.
- 이창근, 우종웅(2002). 태권도 수련에 있어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1(1), 144-158.
- 이흥우(2010). *교육의 개념*. 서울: 문음사.
- 임태희(2015). 태권도인성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수련 효과. *국기원 태권도연구*, 6(1), 71-95.
- 장용규(2010). 초등 체육의 정당화 논의와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 *한국초등교육*, 21(2), 325-337.
- 장용규, 김동식(2016). 태권도 민족주의 담론 형성의 주체와 전략. *국기원 태권도연구*, 7(1), 1-20.
- 전운수, 주동진(2005). 박정희정권의 민족주의 체육정책 담론. *한국체육과학회지*, 14(1), 15-21.
- 정민주(2017).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통치성'에 대한 연구-1987년 이후 '인성'에 관한 사회문화적 담론들의 접합-.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정수진(2008). *무형문화재의 탄생*. 경기도 고양: 역사비평사.
- 조기제(2016).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의 한국 : 가능성과 과제. *평화학논총*, 6(1), 85-104.
- 진중의(1998). 태권도 수련생들의 성별에 따른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무도학회지*, 9(1), 171-179.
- 최의창(1997). 학교체육의 정당화. *교육학연구*, 35(4), 229-251.
- 홍찬숙(2016). 세계사회, 지구화, 세계시민주의 사회학: 루만, 기든스, 벡의 세계화 관련 논의 비교. *한국사회학*, 50(4), 135-168.
- 황옥철, 김정수(2008). 한국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한국체육사학회지*, 13(3), 1-14.
- 황인식, 정찬모(2010). 태권도 수련이 중학생의 신체구성과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5(2), 59-66.
- Kamens, D. H. (2012). *Beyond the Nation-state*.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Lakes, K. D. (2013). 태권도 수련의 어린이 교육적 가치: 태권도 수련효과의 과학적 증거. *국기원 태권도연구*, 4(3), 101-120.
- Moore, G. E. (1988). *Principia Ethica*. N.Y.: Prometheus Books.
-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 Rorty, R. (1996). *우연성, 아이러니, 연성*. 김동식 외 역. 서울: 민음사.

Transition of Taekwondo Education Discourse for Culturalism

Kim, Dong-Sik (Seoul Dongdap Elementary School, Teacher) ·
Chang, Yong-Kyu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analyze current discourse on Taekwondo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aekwondo education in the cultural age. It traces the Taekwondo education discourses genealogically, reveals that it has been progressed from the physical training centered on discipline to humanity education through Taekwondo and the limits of these discourses ar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external justification and the subjectivity of discourses. In the cultural power age, Taekwondo was identified as the main resource from the perspective of soft power and the cultural value of Taekwondo in the global age was discussed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soft power, the preservation of individual culture against the standard culture, and the major cultural heritage in a multicultural society. Lastly, the direction of Taekwondo culture education was discussed in term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establishing subjectivity for forming Taekwondo culture.

Key words : Culturalism, Taekwondo cultural education, Discourse of Taekwondo education